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국어사전의 미래와 겨레말큰사전

유현경(연세대학교)

차례

1 서론

2 국어사전의 미래

3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4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

5 결론

1. 서론

* 이 발표문에서 개진한 겨레말큰사전 방향성과 관련된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인 것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며 본문에서 제시된 겨레말큰사전 관련 자료의 수치들은 사전 발간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 목적

- 국어사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7년 종이사전 및 전자사전의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 국가 주도로 편찬된 국어대사전과의 비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등 : ≪겨레말큰사전≫

≪겨레말큰사전≫ 사업 현황

-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5년까지 총 25차 남북 공동편찬회의를 진행
-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현재까지 남북 공동편찬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태로 편찬 사업이 지속 중임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편찬 사업의 조기 완수를 위하여 그간의 남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회에서 제작한 대북 협의용 자료로 2021년 3월에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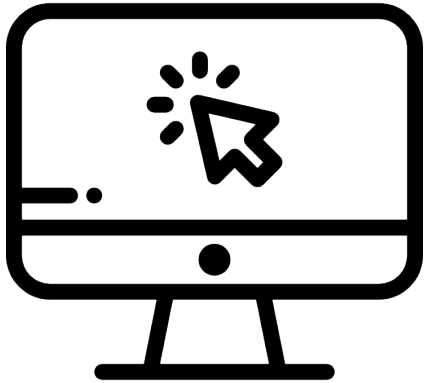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 남북 공동편찬회의 재개에 대비하여 대북 협의용 자료로 제작되었음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는 2027년 10월에 종이사전 발간을 목표로 2024년 1월부터 가제본 원고 30만 7천여 개(미합의 올림말 집필 원고 포함)의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임
- 가제본과 2027년 발간 예정인 종이사전 모두 남북한 공동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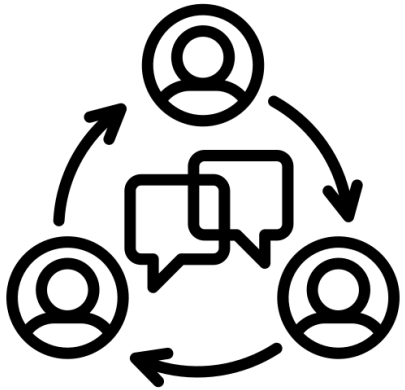
- ≪겨레말큰사전≫ 발간의 전제가 되는 미래형 국어사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특징은 무엇인가?

2. 국어사전의 미래

국어사전의 미래?



온라인화



사용 편찬자의 전환

경제적 자원

종이사전

"사전은 인간의 가능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정보 소통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선별·조직화한 내용을 담은 책의 한 종류이다. (중략) 어떠한 사전이든 간에 특별한 부류의 책인 점에서 적어도 구조화된 정보의 총체로서의 텍스트인 동시에 생산·소비의 유통 과정을 갖는 제조물로서의 양면을 지니며, 모든 사전은 본질적으로 기호적(semiotic) 대상이자 문화적(cultural) 대상이다."

<홍재성 2009>

- 전자사전이 대세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종이사전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함

전자사전의 개념 및 범위

- 단어들의 철자, 의미,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조 가능한 전자화된 형태의 자료 (Nesi(2000), 이용훈·이종혁(2006), 안의정(2014) 등)

- 전자판 사전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위한 용어집이나 글자를 스캔하여 번역해 주는 장치, 심지어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에 들어 있는 철자검사기(spell cheker)도 모두 전자사전에 속함

전자사전의 역사 – 영어사전

- 영어사전의 경우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전자사전들이 만들어졌고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디롬이나 디스크, 휴대용 기기 등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됨 (이용훈·이종혁 2006:30)

- 대표적인 영어 전자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OED)
  - ➢종이사전 : 1928년 초반본 완간 (1860~1928 편찬)
  - ➢전자사전 : 1992년에 나와 2000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전자사전의 역사 – 국어사전

- ≪우리말큰사전≫ : 1996년 최초의 전자 국어사전으로 발간
- ≪연세한국어사전≫ : 2000년부터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 ≪표준국어대사전≫ : 2001년도에 시디롬 형태로 전자사전이 발간
- ≪표준국어대사전≫(2008) :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사전 형태로 사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2011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중 실제 쓰임이 있는 주요 어휘 15만여 개를 선정하여 앱 사전을 출시, 현재 포털을 통하여 웹 사전으로도 서비스
- ≪우리말샘≫ : 2016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여 웹 사전과 앱 사전으로 서비스

≪우리말샘≫의 특징

- 2016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
- 웹 사전과 앱 사전으로 서비스
- 이전의 국어사전은 종이사전이 먼저 발간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사전이 만들어진 데 비하여 종이사전의 발간 없이 처음부터 전자사전으로 기획되어 출시되었다는 것이 특징
- 종이사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전자사전으로 발간
- 국내 최초의 사용자 참여 국어사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 비교

종이사전	전자사전
분량 제한으로 올림말 선별의 문제, 제한적인 용례 선택의 문제가 있음	분량 제약에서 자유로워 올림말이나 용례를 제한하지 않아도 됨
올림말과 용례가 제한됨으로써 정보의 질이 담보되어 신뢰성 확보됨	사전 콘텐츠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지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적절함	콘텐츠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나 연구 대상으로 유의해야 함

➢ 안의정(2014) "전자사전은 영원한 베타 상태"

국어사전의 온라인화

- 남길임(2005), 유현경(2010), 정철(2016), 배연경(2016) 등 여러 연구에서 예견함
- 종이사전의 발간이 상업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자 텍스트가 어떤 매체를 통하여 서비스될 것인가?
  - ➢오프라인 전자기기 사용은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전자사전은 개인용 컴퓨터 웹 사전과 스마트폰 모바일 사전이 주가 될 것

사전 편찬자의 전환

- 종이사전 : 사전 사용자가 사전 정보를 이용할 뿐 사전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하기 어려움
- 초기 전자사전 :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개인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검색하는 초기의 버전에서는 검색 방법이 다를 뿐 종이사전과 마찬가지로 편찬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함
- 현재의 전자사전 : 사전의 사용자들의 생산자로서 역할이 증대됨

- 전자사전은 사용자 참여 사전으로 확대가 됨

사용자 참여 전자사전

- 배경
  - ➢인터넷 환경과 사전 편찬 도구(tool)의 개발, 오픈형 온라인 사전 발간 등 사전 편찬의 영역이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열리게 됨
  - ➢최근 사회·문화적 변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신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김경(2018) : 이용자 참여형 사전 편찬(user-participated lexicography)
  - ➢사전 독자가 직접 사전 표제항을 집필하도록 하는 방식
  - ➢협업식 사전 편찬(collaborative lexicography) 또는 상향식 사전 편찬(bottom-up lexicography)
  - ➢이전의 전문가에 의한 사전 편찬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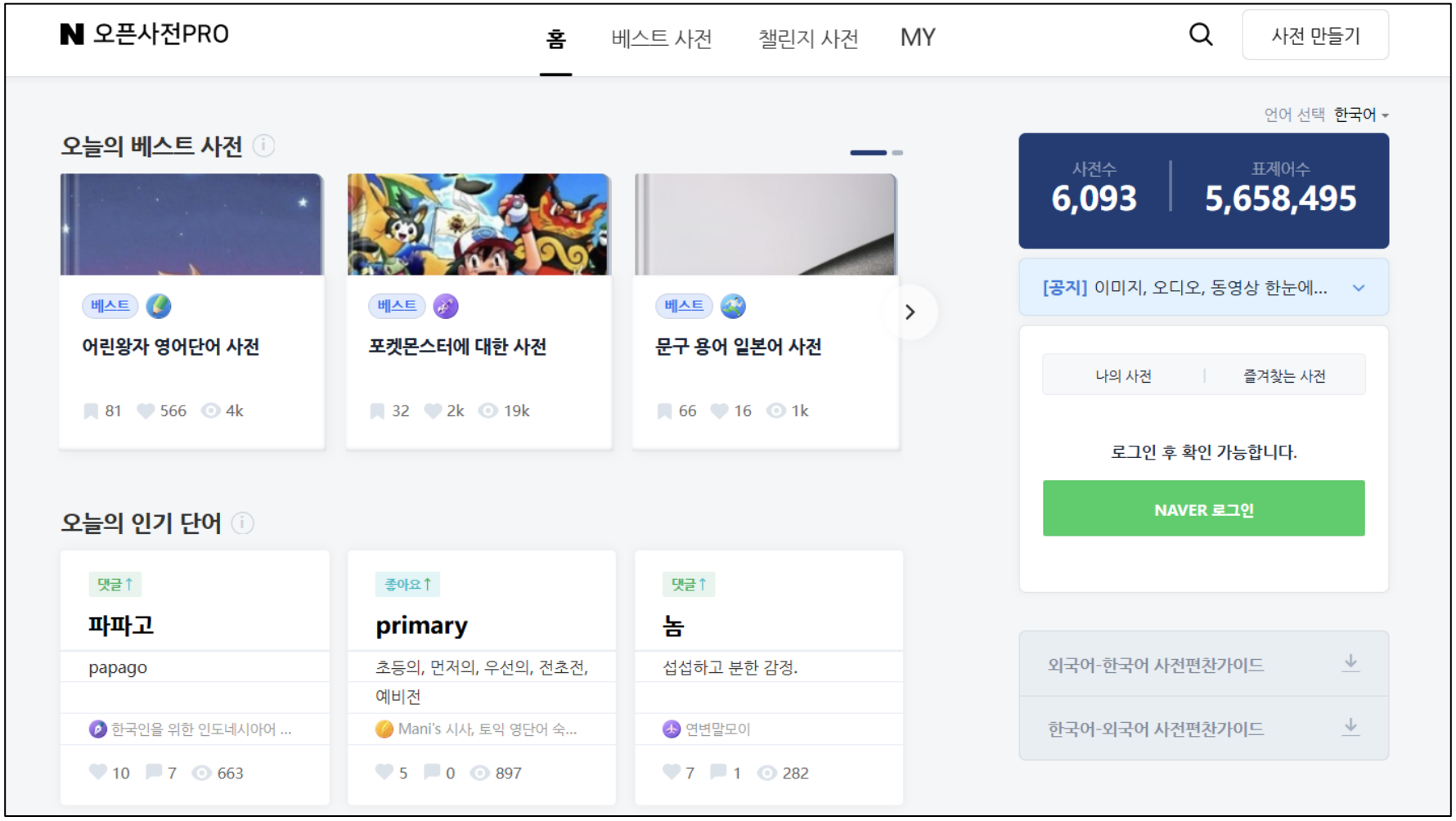
사용자 참여 전자사전

- 배연경(2016) : 사전 편찬 주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기술함
  - ➢대중화 : 사전 편찬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대중의 역동적인 참여로 이행하고 있는 현상
  - ➢자동화 : 사전 편찬 주체가 사람에서 컴퓨터로 이행하는 현상

-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 사전 편찬의 영역은 사람과 기계의 협업식 작업이 아니라 기계가 주도적으로 사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여 사전 편찬의 전 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었음

국외 사례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국내 사례 : 네이버 오픈사전 PRO



Kim(2023), 네이버 오픈사전 PRO의 특징

- 1차 버전 : 2018년 출시, 사전 제작 플랫폼을 강조
- 2차 버전 : 업그레이드되어 2021년 출시, 사전 제작에 중점을 둔 사전 플랫폼으로 진화함

- 특징
  - ➢사전 편찬과 콘텐츠 소비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 사전 플랫폼
  - ➢일반 사용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데모틱 플랫폼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 ➢사전 구조를 변경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사전 편찬 가능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국어사전의 중요성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사전은 언어 자원으로서 가치를 고려해야 함
  - ➢언어 자원은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 앞으로의 국어사전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전의 콘텐츠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언어 자원이나 참고 자료 등을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국어사전의 중요성

- 배연경(2016)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올림말과 용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전은 이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어휘 데이터베이스가 사전을 위한 원재료인 것이 아니라 사전이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부수적 파생물이 되는 셈

- 사전 편찬의 과정과 활용 과정 전체가 언어 자원으로서 중요
  - ➢최종 결과물로서의 국어사전
  - ➢사전을 편찬할 때 활용되는 대규모 말뭉치(혹은 빅데이터), 사전 편찬을 하거나 가공하는 전산 도구, 전자사전 발간 이후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파일 등

Rundell(2023), 사전 편찬의 자동화

「Automating the creation of dictionaries: are we nearly there?」

- 10년간 말뭉치의 가용성으로 인하여 사전 제작의 자동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2022년 11월에 등장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과 특히 OpenAI에서 출시한 ChatGPT 제품군이 사전 편찬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함
- ChatGPT가 사전 편찬의 자동화에 활용될 가능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ChatGPT가 생성한 사전 콘텐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결과의 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ChatGPT가 '사전학의 종말'을 예고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3.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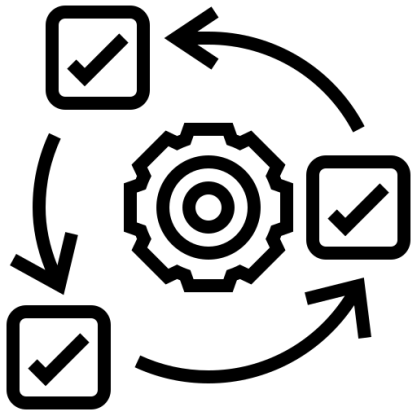
유현경(2021),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 언어 통합 사전: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동포들의 한국어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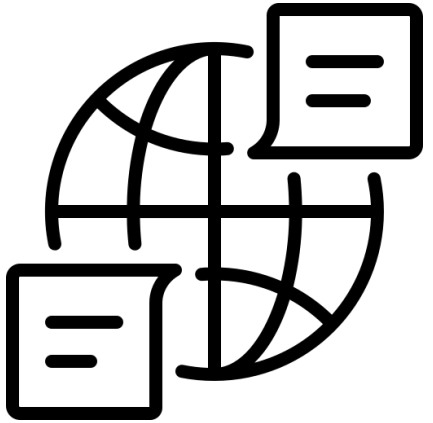
- 과정형 사전
  - ➢편찬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전
  -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열려 있는 사전
  - ➢그 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콘텐츠에도 의미를 두는 사전

- 본고는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전문용어와 지역어에 중점을 두고 살펴봄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전문 용어



지역어(토박이말)

전문용어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의 국어사전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용어가 가장 중요한 올림말의 부류
- 남기심(2002), 권재일(2015) : 남북의 언어 사이에는 심각한 음운 체계의 변화나 문법상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질적인 면보다 동질적인 면에 더 주목해야 하며 언어 차이는 주로 어휘에 국한되고 부분적임
- 권재일(2006) : 남북한이 서로 교류 없이,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관으로 인하여, 전문용어는 꽤 다른 모습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면서 통일 이전에는 남북 간의 원활한 학술 교류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는 효과적인 학문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전문용어와 이의 분류 체계에 대한 표준화는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함
- 최효정(2022:550) : 남북한의 일상적인 생활 어휘에서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지만 전문용어의 경우는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남북한 용어 대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남북한 사전의 전문용어 비율 비교

사전	전체 올림말	전문영역	전문용어	비율(%)
겨레말큰사전	307,813	42	49.612(52,009)	16.12
표준국어대사전(1999)	509,076	53	225,779(229,129)	44.35
조선말대사전(1992)	352,850	46	36,215(36,270)	10.26

※ 전문용어의 괄호 안의 숫자는 뜻갈래 수를 나타냄

-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전문용어 비율은 전체 올림말의 44.35퍼센트로, <조선말대사전>(1992)에 비하여 거의 4.4배
-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의 비율은 <표준국어대사전>보다는 적고 <조선말대사전>보다는 큼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올림말 선정 기준

-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작업 요강' 및 남북 올림말 분과 합의 주요 사항에서 전문용어 선정 기준

①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된 전문용어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② 현 시대 과학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올리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영역별로 선정한다.

③ 좁은 범위에서만 쓰이는 어려운 전문용어 및 인명, 지명, 사건명 등의 고유명사는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④ 계열어휘 측면에서 전문용어를 선정하되 누락된 전문용어는 추가하여 선정한다.

⑤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 정보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전문용어와 그 순화어, 좁은 분야에서만 쓰이는 어려운 전문용어와 그 순화어는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뜻풀이 원칙

①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기준으로 삼되 남과 북의 전문어 사전에 기술된 내용도 아울러 검토하여 쉽고 간결하게 풀이하도록 한다.

② 전문어의 세부 분야나 올림말의 제한된 분야를 나타낼 때에는 <[특정 분야]에서>라는 제한표현을 쓴다.

③ 남북 간 차이가 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합의한 용어를 사용한다.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 뜻풀이 원칙

(가) **사칙1** [사:칙] (四則) [명]《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네가지 셈법, 또는 그 셈법을 리용한#이용한 셈. | 우리 마을 얌전이는 글도 좔좔 읽고 복잡한 {사칙}문제도 척척 푸는 실자가 있는 처녀인데 자네 같은 까막눈을 서방으로 받아들이자고 하겠는지 모르겠네. (《딸에게서 온 편지》) / 요즘은 한글은 물론이요 {사칙}계산과 기본 생활영어 정도는 다들 배우고 입학한다던데.《전아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말] 넉셈. 사칙산법. 사칙연산. [참고] 가감승제.

(나) **넉셈** [넉:쎔] [명] 《수학》

=사칙1(四則). ‖ {넉셈} 계산. {넉셈으로} 된 문제를 풀다. | {넉셈에선}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게 됐으니까 더하기를 먼저 하구 곱하자면 괄호를 쳐야지!(《함께 사는 사람들》)

[넉+세-+-ㅁ]

- 사칙’과 ‘넉셈’ 중 남과 북은 ‘사칙’으로 합의하여 뜻풀이는 기본 올림말인 ‘사칙’에서 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넉셈’은 같은말로 처리하였고 ‘넉셈’에서는 뜻풀이 없이 ‘=사칙1(四則)’이라는 정보를 주었음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의 특징

- ≪조선말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올림말이라 하더라도 계열어휘를 고려하여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 올림말을 추가함
-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올림말 간의 계열관계를 고려하여 올림말을 선정하고 뜻풀이를 함

- 남한과 북한 사전의 올림말을 대상으로 하나의 용어로 합의하여 이를 사전에 올림말로 수록함
- 실제 전문 분야의 용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짐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올림말 선정 지침

- 현재 널리 쓰이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의 언어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휘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음

- ≪겨레말큰사전≫이 지역어 조사와 올림말 선정에 중점을 두어 왔음

남북한 사전의 지역어 비율 비교

사전	전체 올림말	지역어	비율(%)
겨레말큰사전	307,813	61,289	19.91
표준국어대사전(1999)	509,076	23,729	4.66
조선말대사전(1992)	352,850	8,378	2.37

- ≪겨레말큰사전≫은 지역어 비율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약 4.7배, ≪조선말대사전≫과 비교하면 8.4배 높음

-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이 지역어에 있음

지역어 조사

- 이길재(2008) : ≪겨레말큰사전≫의 새 어휘 조사 목적은 우리 민족이 생활 환경에서 쓰고 있거나 썼던 말 가운데 민족 언어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어휘를 조사하여 뜻풀이와 함께 용례를 제공하는 것

-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조사의 방향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토속방언을 조사하여 채록하는 것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이나 생활 환경, 제례 의식, 민간 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를 조사하여 채록하는 것

≪겨레말큰사전≫의 지역별 지역어 분포

지역	올림말 수	지역	올림말 수	지역	올림말 수
강원	7,020	제주	9,003	평안	1,482
경남	6,361	충남	2,298	함남	2,502
경북	7,913	충북	1,359	함북	2,263
경상	2,281	충청	801	함경	1,550
경기	2,066	량강	769	황해	677
전남	8,077	자강	734	로씨야(카자흐스탄)	1,093
전북	3,008	평남	589	일본	4
전라	1,808	평북	3,456	중국	2,006
올림말 수(단위: 개)			계	67,114	

≪겨레말큰사전≫의 지역별 지역어 분포

-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는 남한과 북한 등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에 산재해 있는 우리말 어휘를 조사하여 채록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어 올림말 61,289개 중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없는 말은 약 4만여 개
- ≪표준국어대사전≫와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지역어 4만여 개를 포함하여 새 어휘는 7만 3천여 개
- 새 어휘는 지역어와 문헌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문헌어이면서 지역어인 것은 없음

≪겨레말큰사전≫의 지역어 사전 예시

갱갈할매숟가락 [갱갈할매숟까락] [명] 키조개. (충남) | {갱갈할매숟가락은} 한 개만 먹어두 배가 불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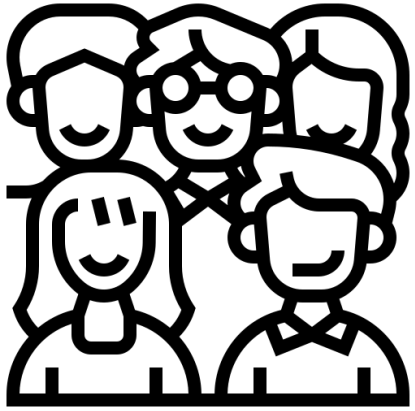
[갱+가-+-ㄹ+할매+숟+가락]

[붙임] <갱갈할매숟가락>은 갯것을 하러 간 할머니가 키조개의 껍데기를 숟가락 대신 사용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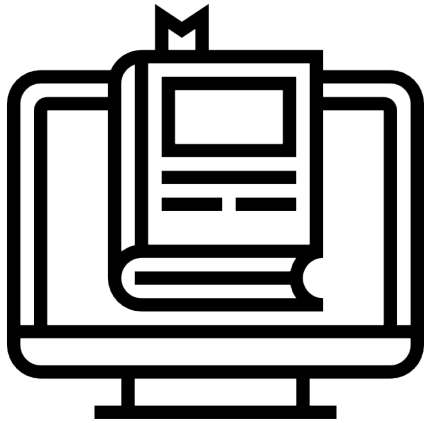
- ≪겨레말큰사전≫이 국내외 산재되어 있는 우리말 언어 자원의 보고임을 알 수 있음

4.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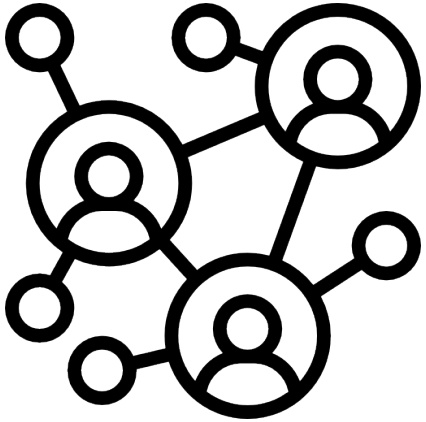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



사전 사용자에
대한 고려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의
차별성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의 소통

≪겨레말큰사전≫의 지향점

- 국가 자원이 투입된 장기적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등과는 차별되는 성격을 지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판 ≪표준국어대사전≫은 2016년 전자사전인 ≪우리말샘≫의 발간을 기점으로 하여, 옛말, 방언, 북한어 등이 ≪우리말샘≫으로 이동되고 종이사전판에서 지면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시하지 못했던 발음 정보, 활용 정보, 원어 정보, 뜻풀이 등이 보완됨으로써 온라인 사전으로서의 장점을 구현하고 규범성이 강화되면서 현대 국어대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
- ≪표준국어대사전≫은 규범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온라인 사전으로 자리매김함

국립국어원(2019), 국어사전 사용자의 이용 목적

-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목적 :

✓62.3% :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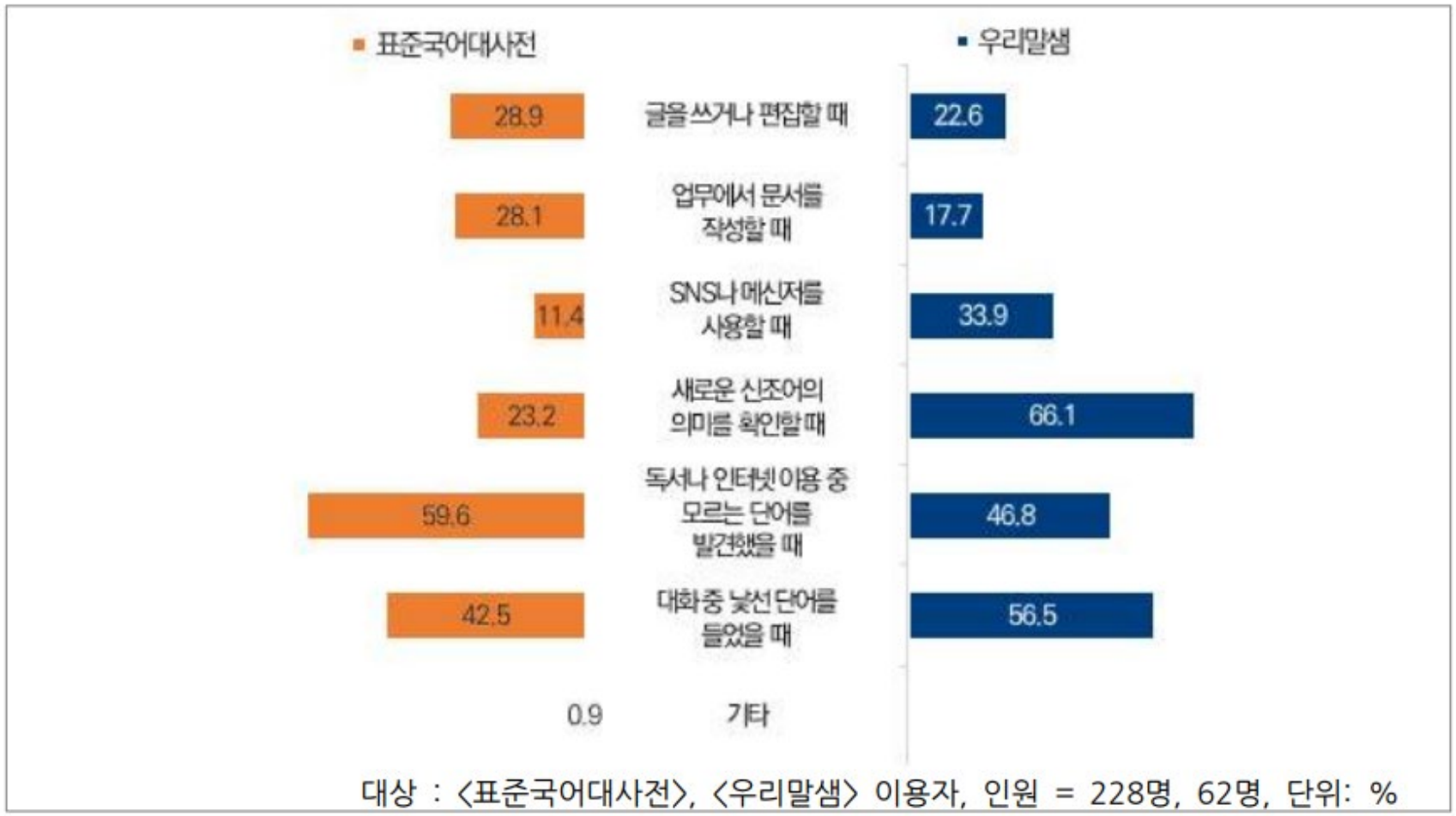
✓26.1% :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2-7> 국어사전 이용 목적

- ≪겨레말큰사전≫은 남한의 어문 규범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나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전은 아님

국립국어원(2019), 국어사전별 사용자의 이용 목적

<그림 2-11>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이용 상황(복수응답)



대상 :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이용자, 인원 = 228명, 62명, 단위: %

≪겨레말큰사전≫은 누구를 위한 사전인가?

- 정희창(2023나) : 특정한 목적과 사용자를 전제로 편찬되는 사전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
  - ➢사전 사용자에 대한 고려는 사전의 편찬 목적과 가치, 역할을 점검하고 소통성을 제고하는 기준으로 작용

-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을 포함할 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용자보다 더 범위가 넓음
- 동일한 언어 규범을 사용하는 남한의 사용자뿐 아니라 북한과 해외의 동포들의 언어생활도 고려해야 함

≪겨레말큰사전≫ 사용자의 이용 목적

- 주된 사전 사용자가 어떤 집단인지 조사할 필요 있음
-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이 아니라 ≪겨레말큰사전≫을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종이사전이나 전자사전의 발간 방향에 참고해야 함

≪겨레말큰사전≫의 어문 규범

- 통일된 어문 규범의 부재는 ≪겨레말큰사전≫이 ≪표준국어대사전≫과 변별되는 특징임

- 사전이 발간된 후 이러한 특징을 사전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함

≪겨레말큰사전≫의 어문 규범- 사례

(가) **망6** [망:] (望) [명]《천문》

음력 15일경에 나타나는, 원모양의 달의 형태.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달의 반구 전체가 해빛을#햇빛을 반사하여 달이 완전히 둥그렇게 보인다. 가끔 월식 현상이 일어나며, 상현과 하현 사이에 나타난다.

[참고] **합삭. 초승. 그믐**

(나) **그믐** [명]

① 음력으로 한달의 마지막 날. | {그믐이} 가까워서 아직 달은 없고 별만 총총했지만 가을바람이 좋았다.《지오: 꿈속에서 깨여나면 또 꿈》(연) / 삼월도 {그믐이} 넘었건만 제비는 들어오지 않았다.《계용묵: 제비를 그리는 마음》 / 시월 {그믐이였는데} 이 북변 설한 땅에는 벌써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축복》) / 오월 {그믐이} 되어 모선제로부터 산삼을 캐러 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억두는 석문에게 아뢰었다.《하용준: 북비》

②《천문》 음력 27일경에 나타나는, 둥근 눈썹모양의 달의 형태. 하현과 합삭 사이에 나타난다. | 창밖을 내다보니 달은 초생도 {그믐도} 아닌 둥근 만월이다.《강규: 적멸보궁에 가겠다면》

[참고] **초승. 상현. 망6(望).**

[<그믐{훈몽} ~그뭄{신류#신유}]

≪겨레말큰사전≫의 어문 규범

- 뜻풀이나 참고 등의 정보에서 남과 북의 미합의된 표기가 병기된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의 제시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 고려 가능
  - ➢종이사전 : 사전의 앞부분에 일러두기도 있고 검색한 올림말뿐 아니라 올림말이 실려 있는 쪽 전체가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전자사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듦
  - ➢전자사전 : 검색한 올림말에 대한 정보만 제시되지만 지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병기 표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매번 달아줌으로써 사전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과 전자사전

-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종이사전이 완성되고 나서 전자화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될 것인가?

- ≪겨레말큰사전≫의 전체 올림말 307,813개 중 합의된 것은 125,000개이고 미합의 원고가 182,813개로 합의 비율이 40퍼센트 정도
  - ➢전체 올림말 30만여 개를 종이사전으로 발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겨레말큰사전≫의 가장 큰 의의는 남과 북이 사전에 관해서 합의를 해왔다는 것에 있는데, 미합의 원고까지 종이사전으로 발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 발간시 고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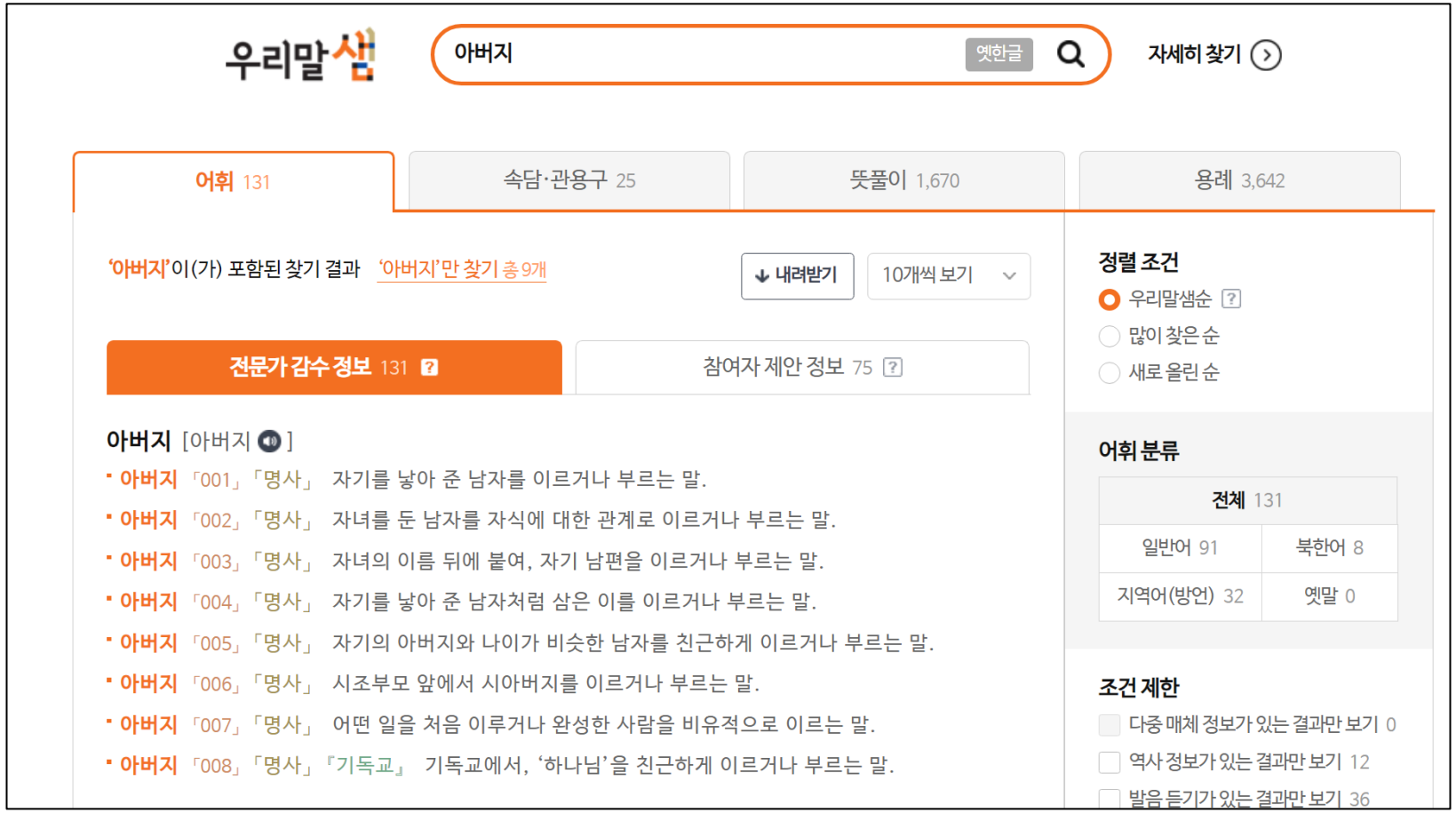
-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에 합의 원고와 미합의 원고를 다 실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 있음
- 합의 원고와 미합의 원고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앞으로 남과 북의 공동 사전 편찬의 길이 닫혀 버릴 가능성이 있음
- 종이사전판에 미합의 원고까지 실릴 경우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비될 수 있음
  - ➢전자사전의 경우 양적으로도 열려 있지만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합의 원고까지 포함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음

전자사전 사례 : ≪우리말샘≫

- ≪표준국어대사전≫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전자사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올림말의 추가나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우리말샘≫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어깨번호

≪표준국어대사전≫(웹버전)의 아버지

≪우리말샘≫(웹버전)의 '아버지'



➢ 뜻풀이 갈래별로 올림말이 구성됨

전자사전 사례 : ≪우리말샘≫의 등재

- 김선철 외(2019:4) : ≪우리말샘≫의 변화 중 하나로 관리와 유통을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서 기본 단위 항목에 절대 주소를 도입함으로써 가변적이어서 준거 기능을 하기 힘들었던 사전의 동형어 번호 대신 세부 의미(sense) 단위로 절대 주소를 도입하고 이를 등재의 기본 단위로 삼아 세부 의미 단위로 표제 항목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말샘≫의 이러한 동형어 처리는 거시구조 아래에 미시구조가 종속되어 있는 기존 사전의 한계를 없앤 것

전자사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 종이사전 :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렬되어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단일 텍스트적 성격
  - ➢부분적인 수정이나 정보의 추가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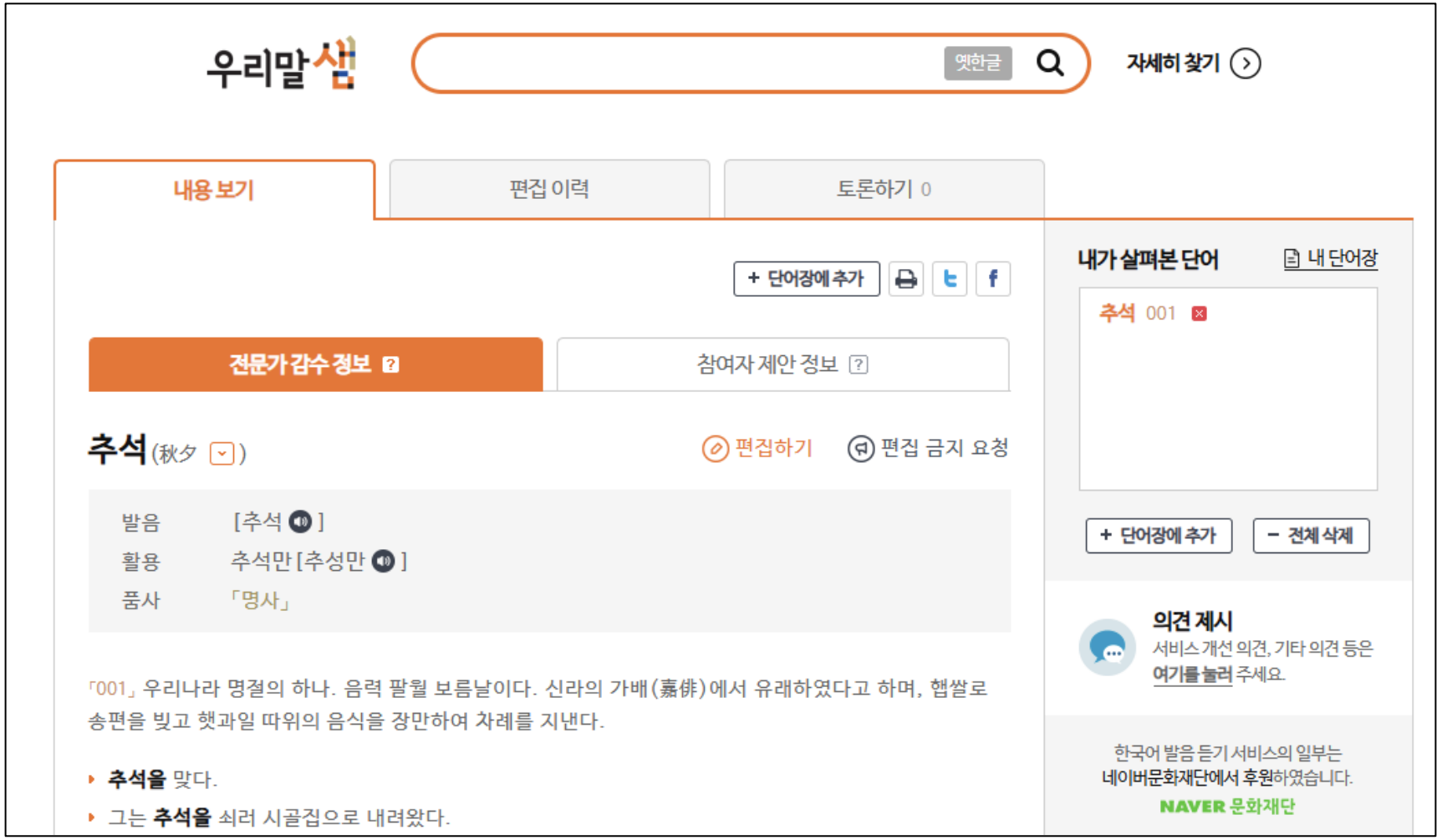
- 전자사전 : 개별 올림말이 독립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느슨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

전자사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 배연경(2016) : 사전이 그동안 속박되어 왔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상의 경직성을 깨고 자모순 배열과 의미별 배열을 넘나들면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줌

- 전자사전의 경우 사전의 재가공이 매우 용이한 구조이므로 사용자 맞춤형으로 사전을 재가공하거나 특정 주제로 특수 사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짐
- 하나의 사전 안에서 올림말의 범주에 따라 사전을 재가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전의 콘텐츠와 연동하여 새로운 언어 자원을 생성하기도 함

사전 콘텐츠 간 연동


우리말샘
옛한글
자세히 찾기
내용 보기
편집 이력
토론하기 0
+ 단어장에 추가
전문가 감수 정보
참여자 제안 정보
추석 (秋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추석]
활용 추석만 [추성만]
품사 「명사」
「001」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팔월 보름날이다.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추석을 맞다.
그는 추석을 쇠러 시골집으로 내려왔다.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추석 001
+ 단어장에 추가
− 전체 삭제
의견 제시
서비스 개선 의견, 기타 의견 등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
한국어 발음 듣기 서비스의 일부는 네이버문화재단에서 후원하였습니다.
NAVER 문화재단

사전 콘텐츠 간 연동

관련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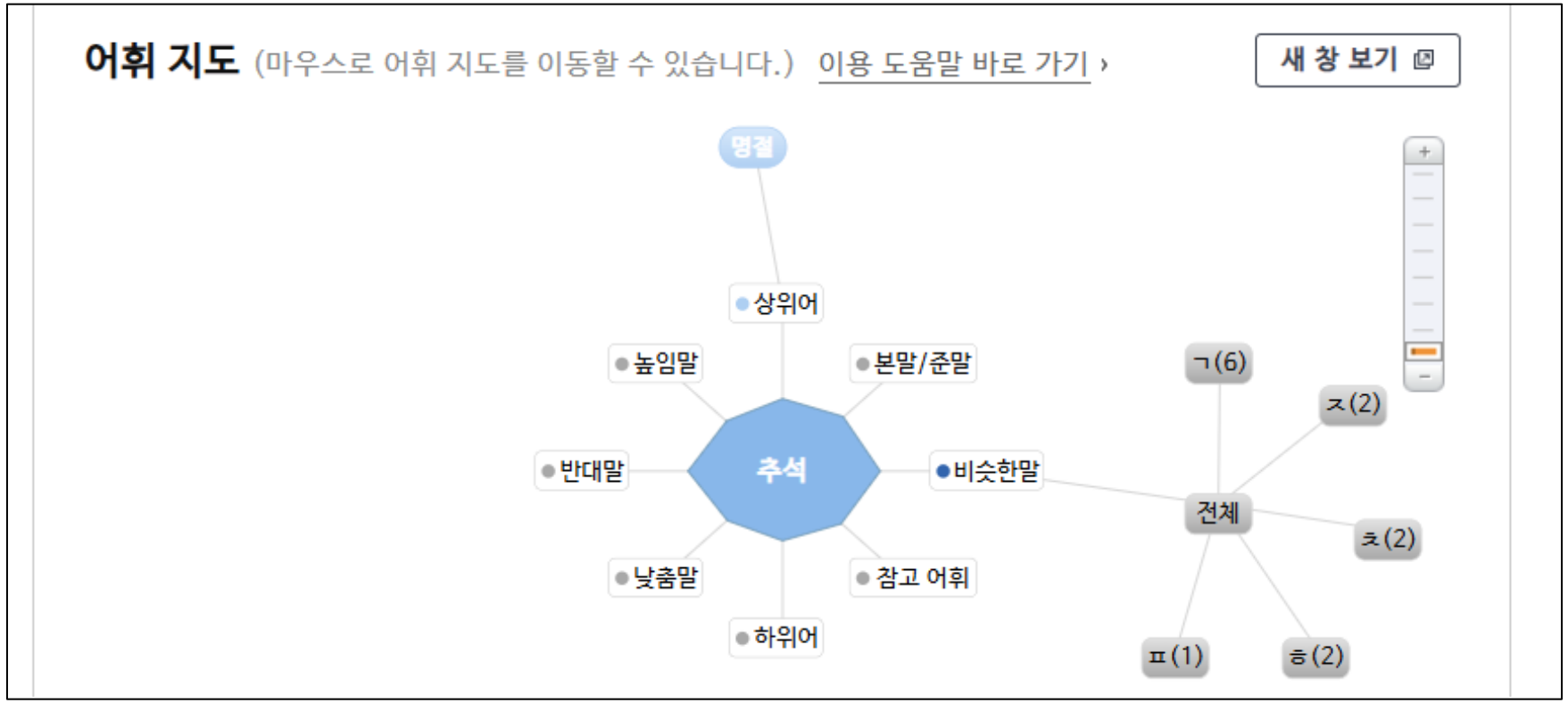
- **비슷한말** 가배-일(嘉俳日), 가배-절(嘉俳節), 가우-일(嘉優日), 가우-절(嘉優節), 가위, 가윗-날, 중추-가절(仲秋佳節), 중추-절(仲秋節), 추석-날(秋夕날), 추석-절(秋夕節), 팔월-대보름(八月大보름), 한-가위, 한-가윗날
- **지역어(방언)** 추식(경남), 추섹(경상, 중국 흑룡강성), 취석(평북), 치석(함경, 중국 길림성), 취셕(함북, 중국 길림성), 치셕(함북, 중국 길림성)
- **옛말** 가외

수어 정보

수어 사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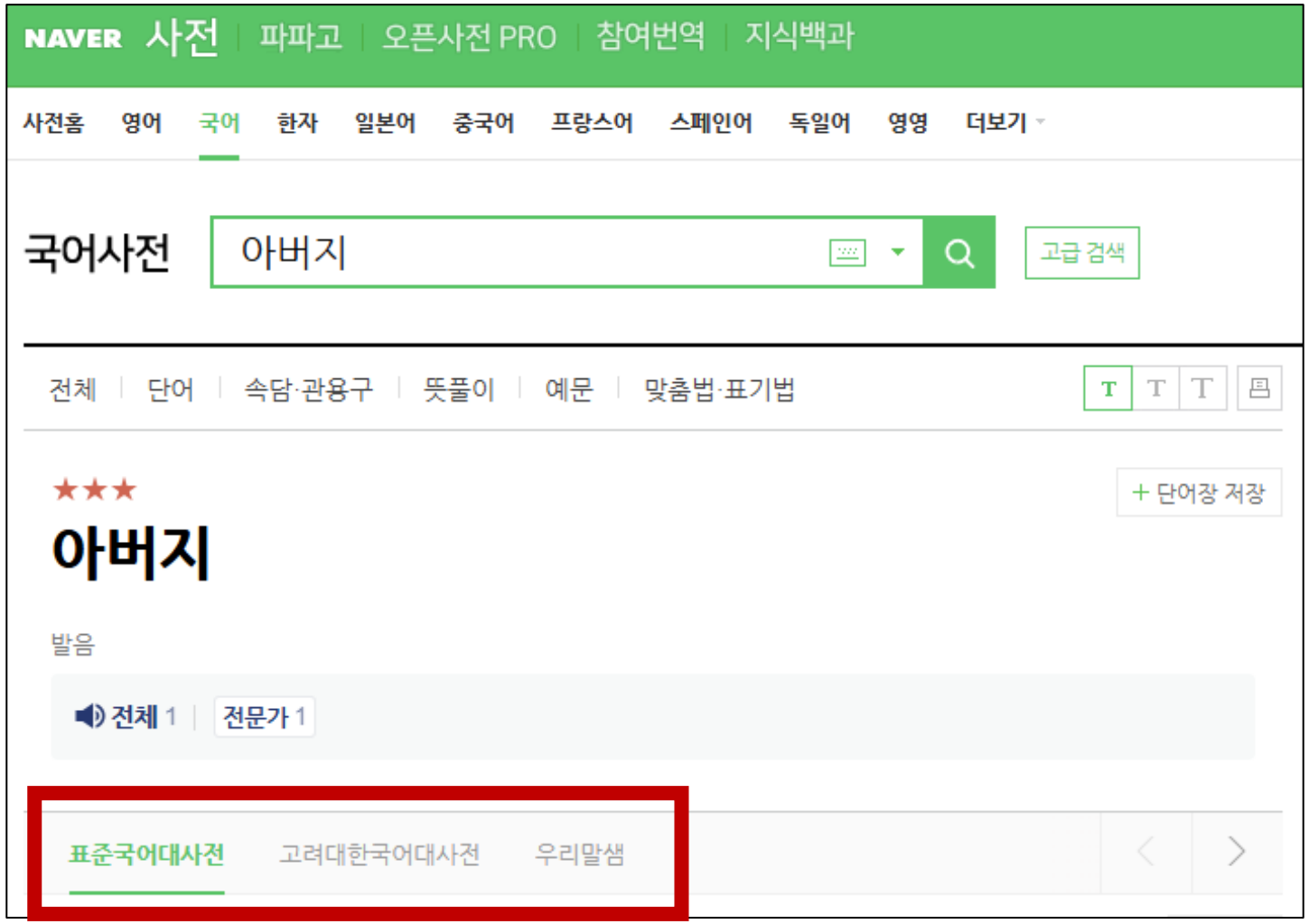
손끝을 맞대고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의 손끝 위에서 4지부터 1지까지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댔다 뗐다 한 다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가볍게 쥔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손가락을 활짝 편다.

사전 콘텐츠 간 연동



- 전자사전의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사전의 콘텐츠들이 연동하여 거대한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다른 사전들과의 연계


NAVER 사전
파파고
오픈사전 PRO
참여번역
지식백과
사전홈
영어
국어
한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영
더보기
국어사전
아버지
고급 검색
전체
단어
속담·관용구
뜻풀이
예문
맞춤법·표기법
+ 단어장 저장
아버지
발음
전체 1
전문가 1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다른 사전들과의 연계

-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들 :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러 사전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단일한 출처에서 오는 제한된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들이 여러 출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전의 외연과 정보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성을 지님

- ≪겨레말큰사전≫도 전자사전판은 다른 사전들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구조가 필요

종이사전과 전자사전 비교 정리

	종이사전	전자사전
올림말	올림말 추가나 보완이 불가능함	개별 올림말이 독립적인 구조를 가져 올림말 추가나 보완이 가능함
구조	거시구조와 미시구조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거대한 단일 텍스트적 성격을 가짐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느슨하게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전의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함
재가공	재가공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용이하지 않음	사전을 재가공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며 특정 주제로 특수 사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함
다른 사전 및 콘텐츠와의 연동	다른 사전 및 콘텐츠와의 연동이 불가능함	연동이 가능하며 새로운 언어 자원을 생성할 수 있음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의 소통

- 사전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
-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라는 지향점이 말해 주듯 사전 사용자가 편찬자가 될 수 있고 편찬자가 다시 사용자가 되어 편찬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전
  - ➢그 결과 2016년 출간 이후 7만여 개 정도의 어휘가 증가

- ≪겨레말큰사전≫이야말로 편찬 목적이나 올림말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의 사전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올림말이나 정보를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적화된 사전

배연경(2016), 협업적 사전 편찬

-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전통적인 사전 편찬 전문가와 민간이 함께 사전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협업적 사전 편찬 현상을 사전 제작 주체의 '대중화'라고 함
- 협업적 사전 편찬은 신어 및 속어, 전문용어, 소수 언어와 위기 언어, 방언 및 지역어의 수집과 기술에서 잠재력이 크며 협업적 사전 편찬은 다국어 사전 편찬에도 적극 도입되고 있음

≪겨레말큰사전≫의 협업적 사전 편찬

- 지역어나 전문용어 올림말이 양적·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겨레말큰사전≫의 협업적 사전 편찬은 사전 발간 이후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남과 북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한국어를 수집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것

5. 결론

≪겨레말큰사전≫의 전문용어와 지역어

- ≪겨레말큰사전≫은 다른 국어사전들과 비교할 때 전문용어와 지역어는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

➢남과 북의 전문용어를 통합한 결과를 사전에 보여줌으로써 남과 북의 전문용어의 협력이 진일보할 수 있게 하였음

≪겨레말큰사전≫의 언어 다양성 보존

- 바벨 계획(Initiative Babel)
  -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범주인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언어 관련 정책 연구 사업의 수행, 문자 체계 개발 지원 사업, 인터넷상의 다언어주의 보고서 작성, 다양한 언어로 된 문화유산 지식 기반 사업 등으로 구성
- 유네스코는 바벨 계획을 통해서 지식 사회를 건설하고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세계 평화라는 이념을 달성하고자 함
- ≪겨레말큰사전≫은 한국어 내에 있는 다양한 변종들을 채집·수록하여 사전적 정보로 담아냄으로써 유네스코의 노력과 맞닿아 있음

≪겨레말큰사전≫이 나아가야 할 길

- 발간 이후에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종이사전에는 합의 원고만, 전자사전에는 미합의 원고까지 싣는 방안이 적절함
- 앞으로의 사전 사용자의 역할을 분석·고려하여 사전의 구조와 운용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언어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내부 정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앞으로 발간 가능한 사전들과의 연계도 중요한 고려 요소

감사합니다.